

우리 집 문간에서는 사계절 내내 죽음의 냄새가 났다. 마당 한구석에 자리 잡은 커다란 무쇠솥에서는 허연 김이 끊임없이 피어올랐고, 그 열기 속에는 민어의 내장과 부레를 끓여내는 비릿하고도 끈적한 악취가 도사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장작불의 열기에 피부가 붉게 익어가는 것도 모른 채, 짐승의 사체에서 발라낸 누런 힘줄들을 평상 위에 올려놓고 밤낮없이 쇠망치로 짓이기고 있었다. 탕, 타당, 탕. 짐승의 역센 근육이 짓이겨져 가느다란 실오라기처럼 풀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그 둔탁한 타격음은 내 신경을 갉아먹는 환청과도 같았다. 맑고 곧은 나무를 두고 굳이 짐승의 뼈와 살을 짓이겨 악취 나는 솥에 끓여내는 그 기괴한 의식은, 내게는 죽은 것들을 불러모아 원귀를 빚어내는 무당의 주술처럼 섬뜩하게만 느껴졌다. 아버지는 고을에서 이름난 장인이었으나, 우리 집의 공간은 늘 비어 있었고 어머니의 치맛자락은 눈물로 마를 날이 없었다. 사달이 난 것은 늦가을,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내려온 절도사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치고 나서부터였다. 흑철로 된 갑옷을 두른 절도사는 마당에 널브러진 짐승의 뼈와 나무토막들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굽어보며 갈자루를 쥐었다. 그는 당장 보름 뒤 추풍령을 넘기 전까지, 백 보 밖에서 적장의 찰갑을 단숨에 꿰뚫을 수 있는 절세의 병기를 내어놓으라 명했다. 만약 기한을 맞추지 못하거나 그 위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군기를 기만한 죄를 물어 아버지의 두 손목을 작두로 베어버리겠다는 서슬 퍼런 군령이 우리 집 지붕을 짓눌렀다. 그날 밤부터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했다. 그는 매끄럽게 다듬어진 대나무와 뽕나무의 결 위에, 무쇠솥에서 끓여낸 그 역겨운 부레 찌꺼기를 치덕치덕 발라가며 검고 기괴한 물소의 뽕을 역지로 이어 붙였다. 나무의 숨결이 짐승의 사체와 뒤엉키는 끔찍한 교접이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는 실처럼 풀어둔 소의 힘줄을 겹겹이 두르고 칭칭 감아, 원래의 유려했던 나뭇결을 흉측하고 뻣뻣한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렸다. 날렵하고 탄성 있어야 할 병기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짐승의 찌꺼기들이 덕지덕지 들러붙은 둔탁하고 흉물스러운 몽둥이가 탄생했을 뿐이다. 나는 두 손목이 잘릴 위기 앞에서도 몽둥이나 주무르고 있는 아버지가 마침내 공포에 질려 실성한 것이라 확신했다. 절도사가 예고한 보름의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

온 삭망(朔望)의 밤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혼절하여 안방에 쓰러졌고, 마당에는 살을 에는 듯한 초겨울의 삭풍만이 몰아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참숯을 벌겍게 피워놓고, 그 흉물스러운 몽둥이를 불길 위로 천천히 그을리기 시작했다. 불길이 짐승의 기름과 진액을 태우며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다. 아버지는 나무와 뽕이 열기를 머금고 비명을 지를 무렵, 돌연 두 발로 몽둥이의 중앙을 짓밟고 양 끝을 두 손으로 거칠게 꺾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무가 원래 굽어 있던 결을 완전히 역행하는, 파괴적이고도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짹, 짹. 내 귀를 의심케 하는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밤공기를 찢었다. 짐승의 뼈와 힘줄이 불길 속에서 타들어가며 내지르는 단말마이자, 나무의 울이 찢겨나가는 비통한 절규였다. 아버지는 핏발 선 눈으로 거친 숨을 토해내며, 나무가 부러지기 직전의 그 극한의 임계점을 넘어 양 끝단을 기어이 안쪽으로 구부러버렸다. 반달 모양으로 유려하게 뻗어 있어야 할 병기는, 아버지의 악력에 의해 양 끝이 기형적으로 맞닿아 완전히 동그란 원의 형태로 흉측하게 말려버렸다. 나무의 결을 완전히 뒤집어엎어버린 채 기괴한 원형으로 결박된 그 끔찍한 고깃덩어리를 보며, 나는 아버지가 절도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작품을 두 동강내어 파괴해 버렸다고 생각했다. 나는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헛간 뒤로 숨어 덜덜 떨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다음 날 새벽, 마당에는 흑철 갑옷의 절도사와 칼을 빼든 군관들이 도열해 있었다. 절도사는 마당 한가운데 나뭇구는, 양 끝이 맞닿아 동그랗게 말려 있는 흉측한 원형의 고깃덩어리를 보며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아버지의 양팔을 포박하고 작두를 대령하라 소리쳤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박당한 채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놓인 그 기형적인 원형의 고리를 입에 물고 바둥거리며 풀려 뺏어나가려는 힘줄의 매듭을 끊어내고는 그 끝에 질긴 명주실을 걸었다. 놀라운 일은 그다음 순간 벌어졌다. 아버지가 명주실을 걸고 양 끝을 아래로 체중을 실어 강하게 밀어내자, 안으로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 있던 몽둥이가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반대 방향으로 뒤집히듯 펼쳐지기 시작했다. 짐승의 뼈와 힘줄이 찢겨나갈 듯한 기형적인 역방향의 압박 속에서 밤새도록 비명을 질

려대던 그 힘은, 명주실이 팽팽하게 걸리자마자 원래의 나뭇결을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탄성으로 둔갑하여 완벽하고 유려한 반달의 형태를 띠며 고정되었다. 아버지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밤새도록 제 살을 깎아 먹듯 안으로만 굽어들게 했던 그 기형의 원을 단숨에 반대로 당겨 시위를 걸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날아가는 궤적조차 보이지 않는 파공음을 내며 마당 건너편 군관의 철제 방패를 단숨에 뚫고 들어가 바위에 깊숙이 박혔다. 기형적인 파괴와 역결의 끔찍한 결박은, 세상의 모든 바람을 가르고 나갈 가장 맹렬하고 폭발적인 장력을 안으로 꺾꺾 눌러 담기 위한 고독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이다. 마당에 운집한 흑철 갑옷의 군관들이 일제히 침묵 속에서 무릎을 꿇었다.

<역결의 장력, 재미니>

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당에 운집한 절도사와 군관들은 밤새 동그랗게 말려 흉측한 원형이 되어버린 아버지가 만든 결과물을 보고, 자신들을 기만하기 위해 고의로 병기를 파손한 장인의 항명으로 간주하여 즉각적인 처형을 집행했다.
- ② 서술자는 아버지가 무쇠솥에 짐승의 부레와 내장을 끓이고 쇠망치로 힘줄을 짓이기며 재료를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죽은 생명들을 다루는 불길하고 기괴한 의식으로 인식하며 강한 심리적 거부감을 드러냈다.
- ③ 아버지는 대나무와 뽕나무의 결 위에 부레를 발라 물소 뽕과 힘줄을 겹겹이 이어 붙였으며, 서술자는 이러한 접합과정을 나무의 자연스러운 유려함이 훼손된 흉물스러운 고기덩어리의 탄생으로 오해하였다.
- ④ 절도사는 아버지가 정해진 기한 내에 백 보 밖의 찰갑을 꿰뚫을 수 있는 무기를 완성하지 못할 경우, 장인으로서의 신체적 생명력을 끊어버리겠다는 극단적인 형벌을 조건으로 내걸며 가족의 생존을 위협했다.
- ⑤ 아버지가 마당에서 쏜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소리를 내며 철제 방패를 뚫고 나아가 바위에 깊숙히 박히자 이를 본 흑철 갑옷의 군관들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었다.

2. 윗글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절도사는 무기의 본질적인 가치와 그것이 제작되는 복잡한 공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나, 군기를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인을 가혹하게 몰아붙여 극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려는 치밀한 통솔자이다.
- ② 과거의 나는 눈앞에 보이는 피상적인 혐오감에 매몰되어 상황을 오판했으나, 아버지의 작업을 돕는 과정을 통해 물질이 겪는 파괴적 붕괴가 곧 새로운 창조라는 변증법적 진리를 주도적으로 깨닫는 입체적 인물이다.
- ③ 아버지는 자신을 향한 가족의 오해와 외부의 물타기 폭압 속에서도 변명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대상의 물리적 한계를 극단까지 밀어붙여 최상의 결과를 창출해내는 비타협적이고 주체적인 장인이다.
- ④ 어머니는 집안의 아내로서 남편의 고독한 작업 방식을 심정적으로 지지하고 이해하려 노력했으나 막강한 권력자 앞에서는 가족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남편의 직업을 훼방할 수 밖에 없는 비극적 인물이다.
- ⑤ 군관들은 국가의 군인으로서 장인을 포박하라는 비이성적 명령을 거부하고 나라를 위해 장인에게 몰래 도움을 주는 애국심이 투철한 인물이다.

3.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밤새도록 제 살을 깎아 먹듯 안으로만 굽어들게 했던 그 기형의 원을 단숨에 반대로 당겨 시위를 걸었다.의 문맥적 의미를 아버지가 의도한 '장력의 본질'과 연관지어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장 취약한 부분인 나무의 중앙을 양 끝이 맞닿을 정도로 동그랗게 구부려 묶어둠으로써, 외부의 습기나 물리적 충격으로부터 짐승의 부레와 힘줄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보존처리 방식이다.
- ② 미관상 흉물스러운 짐승의 찌꺼기들을 감추기 위해 몽둥이를 동그랗게 말아 표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겉모습을 중시하는 절도사의 눈을 속이고 처형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다급한 속임수이다.
- ③ 화살이 나아가는 방향과 정반대로 나무와 뽕을 극한으로 휘어 고정해 둠으로써, 그 억눌린 극한의 역방향 스트레스가 활시위를 거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정방향의 폭발적인 탄성에너지로 전환되도록 하는 핵심공정이다.

④ 나무의 자연스러운 곁을 억지로 거스르고 기형적인 원형을 만듦으로써, 절도사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장인으로서의 극단적인 저항 의지와 불복종을 시각화한 것이다.

⑤ 나무를 동그랗게 하여 제 살 깎아 먹듯 만듦으로써, 스스로에게 채찍질하여 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는 아버지가 물건에 자신을 투영시킨 것이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서술자는 다양한 서술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그 중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주위 상황을 풀어낸다면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심리를 주위 상황에 투영시킴으로써 독자가 등장인물에 집중하게 만들어 주위 상황을 제한적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①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역전을 빈번하게 교차시키는 서술방식을 통해 '나'가 지닌 과거의 억압적 트라우마가 현대적 시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극복되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②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숙하고 불안한 1인칭 관찰자의 극단적인 주관적 묘사를 필터로 삼아, 고도의 기술적 공정이 기괴한 파괴 행위로 오독되도록 유도하여 독자의 긴장감과 반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③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감정적 동조와 비판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혼재시켜, 당대 지배 계층의 억압적인 수탈 방식과 피지배계층의 체념적 수용을 객관적인 사회학적 시선으로 고발하고 있다.

④ 사건의 전말을 정확히 꿰뚫는 전지적 서술자가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극한의 권력 앞에서 붕괴되는 장인의 예술적 고뇌를 비극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서술자가 면밀한 설명을 통해 공정과정을 드러냄으로써, 독자가 장인인 아버지의 행동이 오랜세월동안 축적된 기술임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억압적인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심리에 집중하도록 한다.